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서울문화마당 3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발간사

만물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공포를 야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죽음에서 비롯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권과 지역·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죽음이 임박한 자에겐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고 살아 있는 자에겐 지난 삶의 모습을 반성하며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혼과 육체의 분리로 인식했습니다. 육체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으로 봤던 것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의례뿐 아니라 망자의 혼을 위한 의례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매장이나 화장·풍장·이중장 등 여러 형식을 통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 씻김굿을 거행하기도 하고, 천도재를 올려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했으며, 혼을 상징하는 신주를 만들어 봉안하고 3년간 시묘살이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속·불교·유교 등 여러 종교에 기반한 상장례 풍습이 때론 독자적으로 때론 서로

융합되는 형식으로 거행되면서 이른바 전통 상장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18세기 이후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이 유입되어 전통 상장례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상장례 문화도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서울문화마당 제3권으로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을 발간합니다. 작은 책이지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장례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서울의 상장례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나가는 양상, 근현대 이후의 장례 장소의 변화와 장례업체의 등장, 현대 사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죽음 교육의 필요성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의 상장례를 비롯한 서울 문화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감수자 선생님,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들, 출판사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신 형 식

발간사 004

여는 글 인간과 죽음의 문화 008

제1장 죽음을 보는 두 가지 시선

1. 정상적인 죽음 018
2. 비정상적인 죽음 024
3. 상례의 사회문화적 함의 034
 - 1) 상례의 의미 034
 - 2) 상례의 구조 038
 - 3) 상례의 공적 성격 049

제2장 죽음 문화의 변천

1. 고대 사회의 죽음 문화 056
2. 유교 중심의 죽음 문화 형성 061
 - 1) 불교 상제례의 유교화 061
 - 2) 무속 상제례의 유교화 068
 - 3) 유교식 상제례의 확립 074
 - 4) 유교식 죽음 경관 구축 082
3. 일제의 죽음 문화 통제 088
 - 1) 공동묘지의 도입과 화장 정책 088
 - 2) 전통 상례의 규제, 〈의례준칙〉 100
 - 3) 새로운 연합장과 사회장의 등장 106
4. 광복 이후의 죽음 문화 변화 110
 - 1) 국가의 묘지 정책 110
 - 2) 국가의 장례 정책 130
 - 3) 장례의 산업화 145

제3장 서울, 서울 사람과 죽음의 풍경

1. 죽음 경관의 변화 150
 - 1) 삶과 죽음의 공간 분리 150
 - 2) 국립묘지의 죽음 차별 160
 - 3) 장례 장소의 변화 168
 - 4) 삶과 죽음 공간의 공존 가능성 174
 - 5) 서울 도심 속의 죽음 공간 182
2. 죽음 문화의 산업화 193
 - 1) 전통 장례의 쇠퇴 193
 - 2) 죽음의례의 정치사회화 207

제4장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1. 현대사회의 죽음 220
2. 죽음을 교육하다 225
 - 1) 의료기술의 발달 225
 - 2) 남은 자들의 상처 치유 227
 - 3) 죽음교육이란? 229
3. 자살에 대한 이해 236
 - 1) 자살의 유형과 해석 236
 - 2) 자살을 보는 시선들 240

달는글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 248

참고 문헌 252

사진 자료 협조 259